첨단 AI데이터센터에 국산 'AI반도체 검증 체계' 구축

독자 기술력·실증 사례 확보 위한 원스톱 시험·검증 체계 마련
제조사 투자 부담 낮춰 시장 진입 지원…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광주시가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핵심 시설인 AI데이터센터 내에 국산 AI반도체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산 AI반도체 제품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인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 사업은 국산 AI반도체의 상용화에 필요한 독자적 기술력과 레퍼런스(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산 AI반도체를 시험·검증할 수 있는 환경·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TTA'는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공인 시험인증 등을 진행하는 공신력 있는 표준화·시험인증 기관이다.

이 사업을 통해 ▲TTA가 구성한 다양한 환경에서 AI반도체 성능 검증 ▲국내 외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반도체 성능 검증 ▲국제 공인 인증 프로그램 ML커먼스 (MLCommons) 기반의 성능 검증 및 시험 결과 게재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보유한 제품 등록 심사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화 추진 등을 진행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이전 단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선 종합성능,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반도체 시험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 등을 원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AI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부담을 완화시켜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함은 물론, 국내 AI반도체 시장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문화된 시험검증과 국제 공인 인증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국산 AI 반도체 회사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데이터센터 내에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하고 실증까지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AI 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산 AI반도체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과 국내 AI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북구 첨단 3지구 내에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핵심 시설인 AI데이터센터는 이미 준공돼 다음 달 공식개소하며,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실증동과 창업동 건물은 내년 말께 완공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고수온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40억 지급

전남도, 피해 큰 78곳 정책자금 11종 상환 연기·이자 감면

전남도가 추석 연휴 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여수의 94어가에 재난지원금 40억원을 긴급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피해어가 94어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78어가는 간접지원으로 수산정책자금 11종에 대한 상환 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해준다.

고수온 피해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 50%(어가당 5000만원 한도), 융자 30%, 자부담 20%로 진행된다.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유지된 고수온 상황으로 전남에는 4개 시·군 198어가에서 842만 마리, 135억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고수온으로 판명된 여수 조피볼락 피해에 대해 1차 지원한다. 이 외 원인 규명 중인 부세, 농어 등 8개 어종과 완도, 진도, 신안에 대해서도 고수온 판명 결과에 따라 10월 말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큰 피해로 상심이 클 어업인에게 이번 1차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합·감동의 전국체전 개최' 막바지 점검

전남도, 도·시군 준비상황보고회…도민 응원단 1만5000명 참여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10월 13~19일)과 장애인체전(11월 3~8일)에는 1만5000여명의 도민응원단과 4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 대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과 관련, 도·시군 합동 준비상황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주재로 전남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22개 시·군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체전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보고회를 통해 도와 유관기관, 시·군 간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완벽한 화합·감동 체전을 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는 도민응원단(1만 5571명)과 자원봉사단(4256명)이 도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도민화합체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단의 사기진작,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 경기장 안내와 질서유지, 체전과 전남 홍보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는 개·폐회식 입·퇴장 관리, 교통대책 등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기는 환경을 공고히 구축, '안전체전'을 만드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모든 방문객은 따뜻한 전남의 정을 담아가도록 마지막까지 현장 위주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탄력 붙나

김영록 지사, 구례 도민과의 대화…"관광객 유입 큰 도움" 찬성 표명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구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에 전북·경남 등과 함께 3개 도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구례군, 전북 남원, 경남 산청, 경남 함양 등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냈으나 지리산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단일 노선화를 조건으로 부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월 아이큡생협과 체결한 217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으로 메디푸드를 개발하고 500병상 규모의 암·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치유병원이 건립되면, 지역에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메디푸드와 치유병원을 자연드림파크와 연계한 치유·힐링 기반의 6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례군은 이날 군민 대표 휴식 공간인 봉성산 근린공원 산책로(4.8㎞)와 쉼터(2곳)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와 전망쉼터 조성(10억 원) 등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구례 군민들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만수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장은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 ▲구례 간전중대~광양 옥룡 간 지방도 승격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볏짚환원 사업 ▲구례 우리밀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등 안건도 제시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구례군이 전남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 취임

김은영〈사진〉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5일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제 4대 대표이사로 김은영 전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으로 성과에 따라 1년씩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하다.

신임 김은영 대표는 재단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경영능력, 전문성, 조직 친화력, 리더십 등의 능력을 검증받고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광주일보 문화부 기자, 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 광주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 위원 등 문화예술계에서 20여년 동안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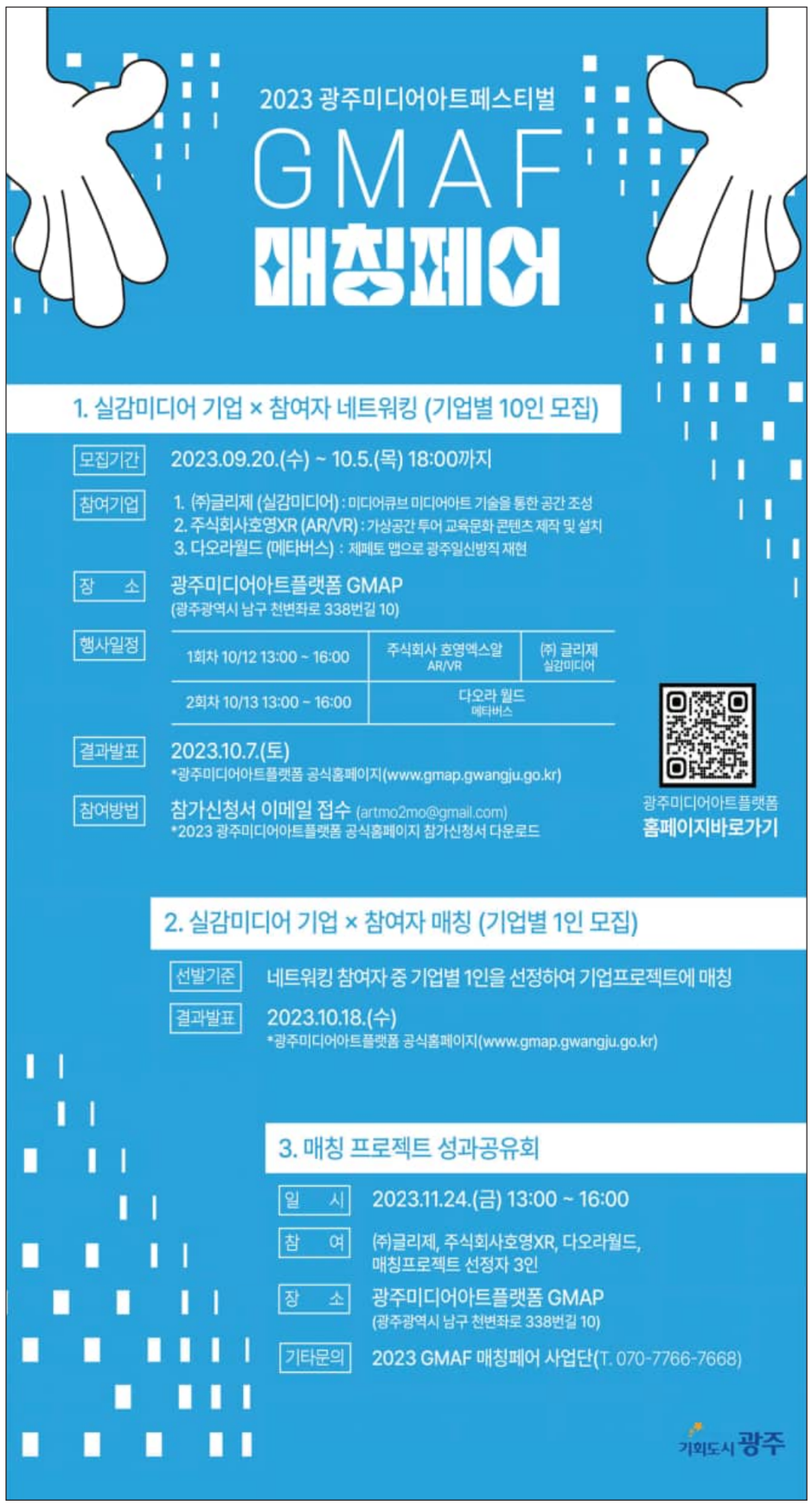
김은영 대표는 "재단이 건강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성과 세계성을 연결하는 문화통합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직영

광주시는 "10월 1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을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으나 적격 단체가 나오지 않아 직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5·18 기념재단과 협력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신설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5·18 현장 체험활동, 사적지 답사, 5·18 청소년문화제, 문화예술 체험, 인권·평화·정의·공동체 가치교육 등도 진행한다.

5·18 교육관은 2010년 서구 치평동에 세워졌으며 지상 4층 규모로 생활관(기숙사), 세미나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 2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